

갤러리

선과색 미술관수업 <아니카 이> <2024 아트스펙트럼>

관리

2024년 11월 23일

선과색미술학원 초등반 학생들과 리움미술관에서 미술관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술관으로 향하기 전 학원에 모여 이번 전시에대한 사전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게될 전시는 리움미술관에서 진행중인

아니카 이 <<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 >>

2024 아트스펙트럼 <<드림스크린>> 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미술관 수업

선과색 미술학원

아니카 이(Anica Yi)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기술과 생물 감각을 연결하는 작업

-빅데이터, 날씨, 꽃, 밀가루 튀김처럼 유기적이고 일시적인 재료,
죽 벉거나 사라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해 인간의 감정과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개미나 꿀 속의 미생물처럼 살아있는 생물로 제작한 작업
삶과 죽음, 열속성과 부패 등의 실존적 주제 탐구

-최근에는 기계, 균류, 해조류 등의 비인간 지능을 탐구하고 인간중심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

●전시 제목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

-물고 수형 중 진화선에서 사용되는 화두의 특성을 차용해
아니카 이 작가의 형상적, 영적인 전환 반영.
-비인간 생물-기계-합업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에 도전해온
아니카 이의 작업이 결국 나와 타자의 관계 맺음에 대한 탐구

●꽃 튀김 작업 시리즈

-꽃과 식물을 튀기기 시작, 부패와 영속성 사이의 긴장 탐구
1) 향기로운 꽃에 밀가루 반죽을 얹고 가루에 튀겨냄
2) 꽃의 향기는 사라지고 감자 튀김 냄새-아름
시들어가는 꽃과 대조, 신체를 단련하는 인간
요리법의 튀김+운동기구인 아령 = 인체의 산전태사와 관련

●움직이는 조각 <방산중> 연작

-광섬유 표면을 따라 빛이 파동이 결박이면 내부의 기계장치들이 드러남.
-인공물과 유기체 사이의 소동중 상상하는 작가의 '기계의 생물화' 개념 반영
-약 5억년 전 캄브리아기 단세포 동물성 플랑크톤인 방산중류에서 영감을
얻음
-촉수를 말거나 아코디언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방산중>들은
유기체와 인공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또 다른 너>(2024)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관계 탐구
-해당 유래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빅테리아가
자라고 있음
-평범한 세균이 합성생물학을 통해 해파리나 산호와 같은 해양생
물의 유전자를 계승하게 되는 과정은 고대의 바다와 현재의 우리
사이의 연결점에 대한 작가의 관심 반영

이, 천다미로, 푸유희고 다카타, 마를렛 쿠딩-간 칸, 보 쥘, 비비앙 샹, 해 시게, 스털라 랑

●국내 및 신진작가 지원 전시 '아트스펙트럼'

●기획전 <드림 스크린>은 밀레니얼 이후 세대가 인터넷, 게임, 영화 등 '스크린'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험을 제화하면서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전과 다른 감각을 갖게 된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단순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영화, 여행 혹은 어떤 것들을 알고 배우는 것들 등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여단가를 가기보다 스크린을 통해서 진행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뀐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에도 명확한 변화가 생겼다고 믿고, 그러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 전시를 기획했다" 전호경 큐레이터

꿈(여구, 무의식) + 스크린 -> '스크린 너머로 떠오르는 환상'이나 전상

특히 스크린을 통해 접하는 광범위한 정보, 감각 자극, 공포를 중심으로 다룬, '귀신 들린 집' 모티브

"감각이 변화하면서 다르게 느껴지는 위험한 공간감이나 시간성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단순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떠올랐다." 전호경 큐레이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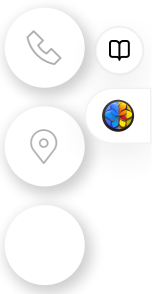
위 이미지는 예술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전시 이해를 돕기위해
사전에 준비해주신 자료입니다.
미리 작가대한 소개, 전시기획의도, 전시의 주제등을 알고가면
전시에 더 몰입하고 더 깊이있게 해석할수있죠



전시장 모습입니다
전시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 ^^

전시 관람후에는 리움미술관 라운지에모여 전시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작성 후 팀을 짜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였답니다.

아니카이의 작품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며,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품 속에서 상상력의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시각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사물들이나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드림스크린' 전시는 아이들에게 몰입감과 호기심을 자극했던 전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들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체험을 제공하며,
어린 관람객들에게 미래의 기술과 예술의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꿈의 세계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형식의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전시는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본 전시는 2024년 12월 29일까지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된다고하니
꼭 가보세요 ^^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선과색미술학원@



신고하기

N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